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먹자



이광호(KBS 해설위원)



조류독감의 여파로 인해 통닭 집 주인과 오리농장 주인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달 강원도 원주에서 통닭 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자가 손님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하는 등 극심한 영업부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앞서 충북 진천군의 농장 주인인 40대 남자가 5천여 마리의 오리가 모두 살 처분된 것을 비판한 나머지 목을 매 숨지기도 했다.

조류독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닭 가공업계는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 치킨점과 삼계탕, 오리고기 식당 등에는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매출부진에 허덕이고 있고 심지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계산업 피해 8천억원 넘어

조류독감 파문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양계농가들이다. 지난해 12월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3개월 동안 양계산업이 입은 피해가 8천억원을 넘어섰다니 닭고기 기피현상이 초래하는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14만여 양계농가를 포함해 가공, 유통, 외식 업체 등 70여 만명의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게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닭과 오리고기 소비량이 조류독감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동남아산 닭 수입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닭고기 값이 올랐다. 안전검사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주한미군이 국내산 닭 소비를 늘렸다는 사실은 안전성을 입증해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의 생활 문화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소문에 따라 춤을 추기 때문이다.

조류독감 걸리면 20억 보험금

이처럼 조류독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닭과 오리고기 관련 단체가 국산 닭과 오리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보험금을 내건 단체는 양계협회와 오리협회 등 4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보상한도 20억원인 1년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들에게 20억원의 보험금을 나눠주게 된다. 이처럼 큰돈을 보험금으로 내놓은 것은 음식섭취를 통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육류 유통 시스템이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닭과 오리고기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한 유통업체에서도 국내 유통업체에서는 처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비축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업체는 자사에서 닭과 오리고기를 구입한 고객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한사람당 1억원, 사고당 3억원을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매주 수요일 닭, 오리고기 먹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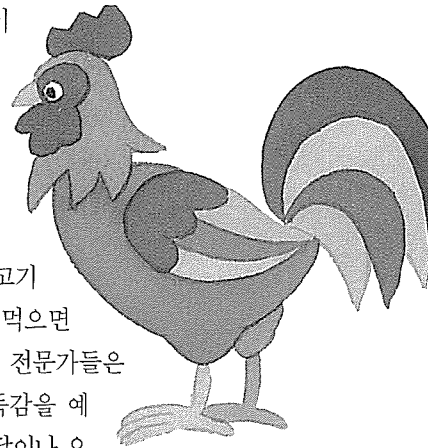
정부도 조류독감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닭과 오리고기 먹는 날로 지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군, 산하기관은 물론 기업체, 유통업체 등 너나할 것 없이 닭고기 먹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과연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는 수요일에 닭 백숙 수백인분이 순식간에 동이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농림부 산하 단체와 군도 삼계탕과 닭도리탕, 닭튀김 요리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기업체들도 닭과 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포스코와 에쓰오일, SK그룹, 신세계, 한

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점심메뉴를 닭고기로 정하는 등 닭과 오리고기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익혀먹으면 100% 안전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감염된 닭과 오리의 똥이나 분비물에 존재하고 섭씨75도 이상에서는 죽기 때문에 닭과 오리고기를 익히거나 튀겨먹으면 100%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닭이나 오



리 등 조류들과의 접촉만 피하면 된다. 또한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고 철저한 개인위생과 규칙적인 생활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독감을 미리 막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나친 불안심리가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지나친 공포심을 갖지 말고 근거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이다. 국민 각자가 닭과 오리고기 소비를 늘려 양계농가를 살려야 한다. 질병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막연한 공포증으로 닭과 오리 산업을 죽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도 실의에 빠져있는 양계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Z]